혁신당 정철원 37.1% 선두 민주 박종원 23.3% 추격전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실시된 전남 담양군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철원 현 군수가 40%에 가까운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담양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담양군수 다자대결 지지도에서 정철원 담양군수가 37.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23.3%로 뒤를 이었고, 이어 이규현 전남도의원(12.4%),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9.9%),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8.7%), 김종진 담양 미래전략연구소장(1.2%)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 또는 '모름'이라 답한 응답자는 6.0%였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18세 이상 20대에서는 44.0%, 30대에서는 43.4%, 40대에서는 36.4%를 기록했다. 50대에서는 37.5%, 60대에서는 40.2%, 70대 이상에서는 30.6%의 지지를 받았다.

13.8%p 차이로 정철원 담양군수를 추격 중인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18세 이상 20대 22.5%, 30대 21.7%, 40대 19.1%, 50대 29.9%, 60대 21.3%, 70대 23.1%로 전 연령층에서 2위에 올랐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는 연령층별로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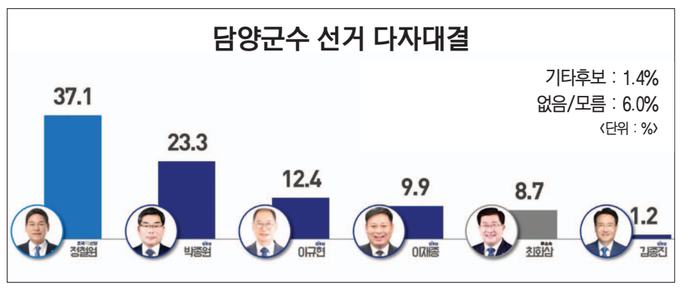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정철원 담양군수가 38.6% 가장 지지도가 높았고,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24.8%로 집계됐다.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11.8%), 이규현 전남도의원(10.8%),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7.5%)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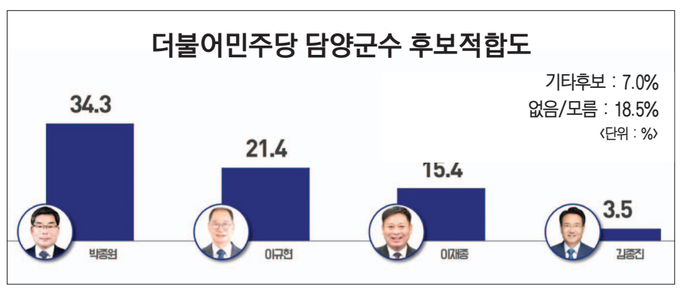
여성 응답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정철원 담양군수가 35.7%,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21.8%를 기록한 가운데 이규현 전남도의원(13.9%),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9.9%), 이재종 전남도의원(8.0%) 순이었다.

선거구별로 1선거구(담양읍, 무정·금성·월산면, 용면)에서는 정철원 담양군수가 41.8%로 가장 앞섰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30.1%를 기록했으며 이어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9.0%),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7.2%), 이규현 전남도의원(4.3%) 순으로 나타났다.

2선거구(봉산·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수북·대전면)에서도 정철원 담양군수는 31.8%를 올리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규현 전남도의원(21.4%), 박종원 전남도의원(15.7%),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10.9%), 최화삼 전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10.3%) 순으로 집계됐다.





13.8%p 차이…이규현 12.4%·이재종 9.9%
사실상 양자대결… 민주·혁신당 합당 변수

정철원 담양군수는 소속 정당인 조국혁신당 응답자들로부터 87.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22.9%의 선택까지 받으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30.4%를 기록했지만,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5.0%밖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적합도에서는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34.3%로 이규현 전남도의원(21.4%)을 12.9%p 앞섰다.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15.4%, 김종진 담양 미래전략연구소장은 3.5%를 기록했다. 성별로 남성 35.3%, 여성 33.3%가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규현 전남도의원은 남성에서 21.0%, 여성에서 21.8%의 지지를 받았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60대를 제외한 전체 연령층에서 앞섰다. 60대에서는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30.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선거구별로는 1선거구에서는 박종원 전남도의원이 45.4%로 가장 높았고, 이재종 청와대 행정관(15.1%), 이규현 전남도의원(13.8%) 순으로 나타났다. 2선거구에서는 이규현 전남도의원이 30.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21.9%,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15.7%를 기록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후보 간의 경쟁이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선거 구도가 '당 대 당 경쟁'에서 '당내 경선 경쟁'으로 바뀌게 되면 후보들의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합당이 무산될 경우에는 혁신당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면서 본선에서 민주당의 표심이 결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KBC 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담양군민 500명(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임지락 35.1%·윤영민 30.9%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 구도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실시된 전남 화순군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임지락 현 전남도의원과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이 오차범위 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화순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수 다자대결 지지도에서 임지락 전남도의원이 3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30.9%로 뒤를 이었고,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은 24.7%를 기록했다. 임 의원과 윤 전 부의장의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4.4%p) 안에 있어 우열을 단정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를 보였다.

그 외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맹환렬 현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와 김회수 현 포프리 대표는 각각 0.8%를 기록했고, 기타 후보는 2.2%로 집계됐다. '없음' 응답은 3.6%, '모름'은 2.0%, '없음·모름'은 5.6%로 나타났다.

계층별 지지율을 보면 임지락 현 도의원은 △18·20대(42.4%) △30대(35.6%) △40대(48.6%) △가선거구(3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한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70대 이상(36.1%) △나선거구(35.3%)에서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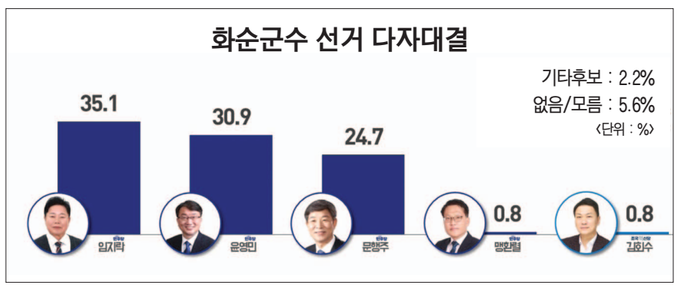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는 화순군수 선거가 특정 후보에게 지지가 집중된 구도라기보다는, 상위권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두권 두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데다, 3위 후보 역시 20% 중반대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선거 구도가 단기간에 고착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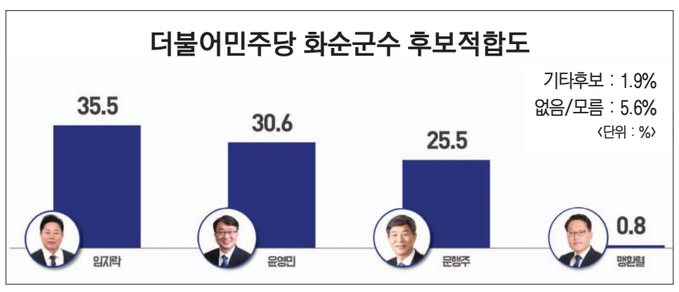
특히 1·2위 후보 모두 4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판세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 경우 정책 이슈 부각, 후보 간 공약 경쟁, 지역 현안 대응 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자대결 구도 속에서 일정 비율의 부동층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층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후보별 선거 전략과 메시지 전달력에 따라 표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조직 결집 여부와 현장 접촉 빈도가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행주 24.7%…맹환렬·김회수 0%대 지지도
이슈 부각·공약·지역 현안 따라 재편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다자대결과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임지락 전남도의원은 35.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30.6%,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은 25.5%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맹환렬 현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는 0.8%, 기타는 1.9%로 집계됐다. '없음'은 3.3%, '모름'은 2.3%, '없음·모름'은 5.6%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임지락 현 도의원은 △18·20대(42.4%) △30대(35.4%) △40대(55.2%) △가선거구(36.6%) △나선거구(37.2%) 등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다.

윤영민 전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70대 이상(39.5%) △다선거구(3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다자대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모두에서 상위권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일정 규모의 부동층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선거 일정이 본격화될수록 후보 간 경쟁 양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여부나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선거전이 본격화될수록 후보 개인의 지역 밀착 행보와 현안 대응 능력, 메시지 관리가 지지율 변동의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단순 인지도 경쟁을 넘어 정책 신뢰도와 행정 역량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현재의 판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후보별 지지 기반이 특정 연령대나 선거구에 일정 부분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 초반 판세가 고정되기보다는, 향후 선거 일정 진행 과정에서 이슈 주도권이나 현안 대응에 따라 지지층 재편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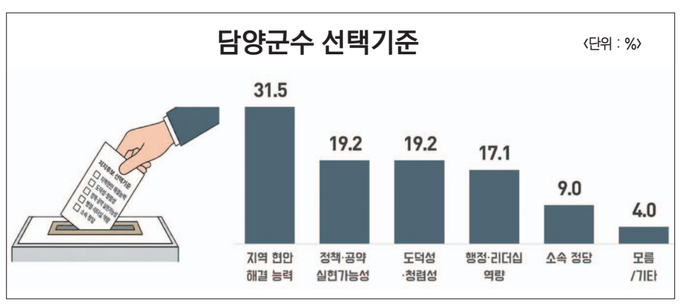
담양 유권자 '지역 현안 해결 능력' 최우선

응답자 31.5%…30대만 '행정력'
공약 실현·도덕성, 19.2% 동률

전남 담양군 유권자들은 차기 군수 선택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담양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양군수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1.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9.2%), 도덕성·청렴성(19.2%), 행정·리더십 역량(17.1%) 순이었다. 소속 정당을 지지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은 유권자는 9.0%, 모름 또는 기타 응답은 4.0%였다.



연령별로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후보자의 잣대로 삼겠다고 답했다. 30대에서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점 있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 능력(31.9%)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청렴성(19.8%), 행정·리더십 역량(19.7%),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16.9%), 소속정당(9.6%)이 뒤를 이었다.

여성 응답자도 지역 현안 해결 능력(31.2%) 가장 우선으로 봤다.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21.6%)이 뒤를 이었고 도덕성·청렴성(18.7%), 행정·리더십 역량(14.4%), 소속 정당(8.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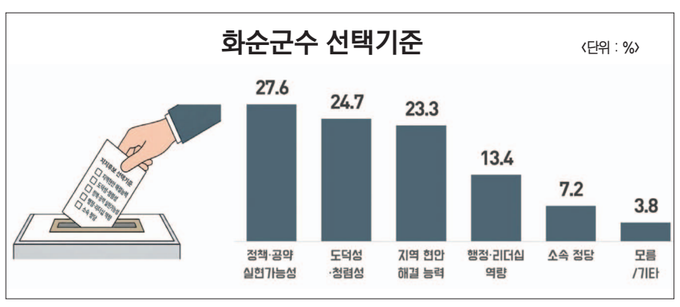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군민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가장 중요

응답 27.6% 선택…연령별 차이
도덕·청렴성, 현안 해결능력 순

화순군 유권자들은 차기 군수 선택 기준으로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화순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순군수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이 2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도덕성·청렴성이 24.7%,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23.3%로 나타나, 군정 운영의 실무 역량과 함께 개인의 신뢰성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됐다. 반면 행정·리더십 역량은 13.4%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꼽은 응답은 7.2%에 그쳤다. 모름·기타는 3.8%였다.



연령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18·20대와 30대에서는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을 선택 기준으로 꼽은 비율이 각각 34.4%, 53.0%로 높았다. 반면 50대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이 33.8%로 가장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청렴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